



주 제:	“희망의 빛”	“연중 제 5 주일 “	2010 년 2 월 7 일
복음 묵상:	[루가 5,1-11]	[이사 6,1-2 7.3-8]	[1 고린 15,1-11]

살아가면서 가장 절망적인 때는 자신의 존재 의미를 상실한 때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삶의 순간순간 많은 물음들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갑니다.

어부 베드로는 절망 가운데에 있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은 고기잡이뿐인데, 밤새 힘겨운 노동의 결과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육신의 피곤함보다 마음속으로 저며 오는 상실감이 베드로를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십니다. “배를 물에서 조금 저어 나가줄 수 있겠느냐?”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아직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구나! 베드로는 탄식 섞인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무능력한 어부에게 그물을 던지라니,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과연 저분은 무엇 때문에 …….’ 그리고 아직은 열은 믿음과 뿌연 희망으로 대답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기쁨과 흥분, 그리고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감정도 잠시, 베드로는 제 자리로 돌아옵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 여기며, 무능력한 제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저는 삶의 의미를 잃었고 희망을 접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죄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예수님의 결정적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절망 속에 헤매던 한 사람이 희망으로 일어납니다. 자신의 존재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작디작은 한 사람이 모든 이를 품에 안는 넉넉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귀한 우리의 존재 의미를 잊고 절망 속에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시는 주님의 사랑 가득 담긴 믿음의 부르심을 들으며, 절망에 주저앉은 우리를 일으켜주는 벗들의 따뜻한 손을 잡으며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소중한 의미를 잃고 헤매는 벗들을 만납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과 벗들의 도움으로 새로 태어나듯이, 우리가 어둠 속에 주저앉은 벗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벗들을,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벗들을, 끝없는 절망의 골짜기로 자신을 내던지는 벗들을, 믿음 가득한 목소리로 부르고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안아야 합니다.

(의정부 상지중 신부님 강론 중에서)

가족 동점 및 기도 요청

- 새로 입단하신 신성원 루치아노 형제님이 가족을 산호세로 데려오시려고 St. Louise 로 2 주간의 여정으로 떠나셨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길에 주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현 지휘자 세실리아 자매님의 부군이신 김 베네딕도 형제님이 딸집으로 부터 이제 집으로 완전히 돌아오셨습니다. 아직은 거동이 불편하나 빨리 회복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수 있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숙 멜라니아 자매님의 모친(권 베로니카님)의 간병차 서울에 가시어 15 일, 수술후 회복중에 계십니다. 멜라니아 자매님의 모친을 위하여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덕 짜리따스 자매님이 아직도 장기/ 투병중에 있습니다. 새해에는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 중에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겔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는 예수를 에워싸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 때 예수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둔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시몬의 배였는데 예수께서는 그 배에 올라 시몬에게 배를 땅에서 조금 떼어 놓게 하신 다음 배에 앉아 균중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아라" 하셨다. 시몬은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뒤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걸려 들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같이 고기를 끌어 올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두 배에 가득히 채웠다. 이것을 본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겁을 집어 먹었던 것이다. 그의 동료들과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놀랐는데 그들은 다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배를 끌어다 호숫가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갔다.



1분 명상

“감사하는 마음”

-- 보도 새피의 《여자는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중에서 --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두려움을 모른다. 감사하는 마음은 빛이
어둠을 뒤덮어 버리듯 두려움을 뒤덮을 수 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은 거만해지지 않도록
막아준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조용하고
겸손한 인간을 만든다. 삶이 선사한
조그만 선물에도 기뻐하게 만든다,

* 삶이 선사한 조그만 선물이 주어졌을 때,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조그만 선물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만 그 다음, 더 큰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 하늘의 섭리이니깐요,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 하늘은 결코 더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 만복(萬福)의 근원이 감사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생활 의 지혜◇

<여드름 치료에 좋은 녹두...>

녹두는 강한 해열,해독작용을 하므로 입술이 마르거나 입안에 무엇이 낳을 때, 여드름이나 주근깨 등으로 피부가상했을 때 대단한 효과가 있다. 또한 녹두는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피부에 생기를 주는 식품이므로 녹두부침이나 청포묵을 자주 먹는 것이 좋다. 녹두가루를 미지근한 물로 반죽하여 크림상태가 되도록 되도록 한후, 잠자기전 얼굴을 깨끗이 바르고 자면 효과가 좋다.

<김치가 쉬는 것을 막으려면...>

여름철에는 김치가 쉽게 쉬어져서 주 부들이 여간 애를 먹지 않는다. 그런 경우 김치를 담그기 전에 계란껍질을 깨끗한 가제에 싸서 독 속에 넣으면 김치가 잘 쉬어지지 않는다. 또한 이미 쉬어진 김치에는 깨끗이 씻은 조개껍데기를 넣어두면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 신맛이 없어질 것이다.